광주 세종고 소프트볼 전국 최강

미추홀기 결승서 서울 신정여상에 9-8 역전승

4월 회장기대회 우승 이어 올 시즌 2관왕 영예

세종고 여자소프트볼팀이 미추홀기 마수걸이 우승과 함께 올시즌 2관왕에 올랐다.

세종고는 지난 24일 인천전문대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미추홀기 전국고교여자소프트볼대회 결승에서 서울신정여상과 접전을 펼친 끝에 6회 홍유진(1년)의 결승타에 힘입어 9-8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대회 정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세종고 소프트볼팀은 지난 4월 회장기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2관왕의 영예도 안았다.

이날 세종고의 대역전극은 3회부터 시작됐다. 0-5로 뒤지며 패색이 짙던 3회초 세종고는 오수아(1년)의 3타점 2루타 등 4안타 1볼넷으로 대거 5점을 뽑아 5-5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상승세를 이어 4회 1점, 5회 2점을 추가해 8-5로 앞서던 세종고는 5회말 신정여상의 끈질긴 추격에 3점을 허용, 다시 8-8의 예측불허 상황으로 되돌리고 말았다.

6회초 세종고는 8번타자 이영란(1년)의 안타와 9번 김소희(1년)의 희생번트로 만든 2사 2루 상황에서 1번 홍유진이 센터앞 결승타를 터뜨려 9-8로 앞서면서 신정여상의 6회말 추격을 뿌리치고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날 결승전은 시간제한(2시간)에 걸려 7회 경기는 못하고 6회까지의 결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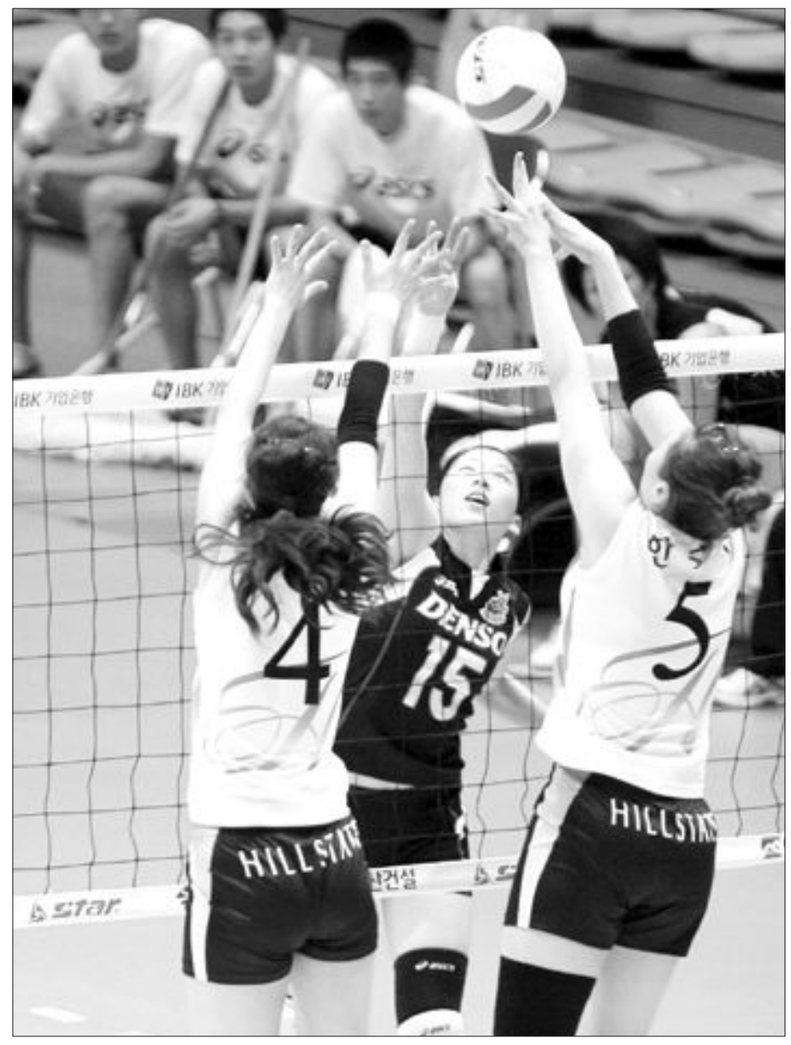
지난 2003년 창단한 세종고 소프트볼팀은 지난해까지 전국대회 정상 문턱서 번번이 물러서다 올들어 지난 4월 회장기대회에서 첫 전국 정상등극의 기쁨을 맛본 뒤 이번 대회까지 거머쥐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현재 세종고 강미(3년)·원혜련(3년)은 상비군 대표로 활약 중이다.

세종고 윤현필 감독은 "선수들 대부분 운동 경력 4~5년차로 시야가 넓고 경기감각이 뛰어난게 우승 원동력이다" 면서 "더욱 노력해 올 전국대회 3관왕에 오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고가 받은 대회 개인상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선수상=홍유진(결승전 4타수4안타·결승타) ▲최우수투수상=원혜련(4승·3경기 완투) ▲타격상=조밝음(2년·타율 0.636) ▲타점상=오수아(9타점) ▲감독상=윤현필 감독 ▲공로상=강길봉 교장.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세종고 소프트볼팀이 24일 인천전문대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미추홀기 소프트볼대회에서 우승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블로킹 벽을 넘어라 26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부산국제배구대회 일본 덴소 에어리비스와 현대건설 그린폭스의 경기. 일본 덴소의 오쿠다(가운데)가 현대건설 강민정(4번)과 한수지(5번)의 블로킹을 피해 스파이크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3-2로 역전승, 4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체육중 김혜빈 유도연맹전 금메달

광주체육중 김혜빈이 2009 하계 중·고 유도연맹전에서 우승했다.

김혜빈은 24일 강진에서 열린 대회 여중부 -57kg급 결승에서 노은비(경기 광문중)를 되치기 한판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혜빈은 앞서 열린 열린 8강전에서 조미지(경남 삼정중)를 허벅다리걸기 한판으로 꺾었으며 준결승에선 박다운(전북 영선중)을 벌칙에 의한 유효승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한편 남중부 경기에선 김영재(광주체육중)가 -48kg급 준결승에서 윤진(경기 용문중)에게 패해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만리장성에 또 막혀…

한국 J탁구 아쉬운 준우승

한국 탁구 유망주들이 2009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남녀 주니어와 남자 카데트 등 세 종목에서 모두 아쉬운 준우승에 그쳤다.

또 예선에서 중국을 3-0으로 물리치는 이변을 일으켰던 여자 카데트는 준결승에서 일본에 덜미를 잡혔다.

한국은 26일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린 남자 주니어(18세 이하)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1-3으로 역전패를 당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은 여자 주니어 단체전 결승에서도 유은총(이일여고)과 유소라(논산여상), 조유진(이천 양정여고)을 내세웠지만 중국의 벽에 막혀 0-3으로 완패했다.

15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한 카데트에서도 남자 대표팀은 중국과 결승에서 함소리와 김동현이 분전했지만 0-3으로 무릎을 꿇어 우승컵을 놓쳤다. /연합뉴스

동신여고 정구 거침없는 우승행진

대통령기 단체전 결승 경북 상주여상 꺾고 올 3관왕

광주 동구청, 남 일반부 4강서 이천시청에 패 동메달

'전국 최강' 동신여고 정구팀의 정상행진이 계속 되고있다.

동신여고는 지난 24일 경북 문경시민정구장에서 열린 제47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북 상주여상을 2-1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동신여고는 지난 제30회 회장기대회(3월)와 제14회 장원배대회(4월)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거머쥐면서 올 전국대회 3관왕의 '우승행진'을 펼치고 있다.

2 복식·1 단식으로 열린 이날 결승에서 동신여고는 첫 복식주자로 나선 임수민과 최정미(이상 2년) 조가 상주여상 김수경·노수정(이상 3년) 조를 4-2로 꺾고 기선을 제압했다. 하지만 이어 열린 단식에서 김수진(3년)이 조혜진(2년)에게 아쉽게 2-3으로 패해 게임스코어 1-1로 최종전 복식에서 승부를 가리게 됐다.

막판 복식에 나선 팀 막내 박은지와 최미란(이상 1년)은 상주여상의 고학년 이혜영(3년)·서홍순(2년) 조를 맞아 환상의 콤비플레이로 침착하게 경기를 펼친 끝에 4-1로 가볍게 승리를 거두며 팀 우승의 주역이 되었다. 첫 복식조였던 임수민과 최정미는 현재 주니어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한편 남자일반부 경기에선 광주 동구청이 경기도 이천시청과의 준결승에서 0-2로 패해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반면 결승에 오른 이천시청은 달성군청을 2-0으로 제압하고 대회 4연패를 차지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스포츠 중계

27일(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포철공고 : 유신고〉(15 : 20·SBS스포츠) 〈청원고 : 동산고〉(18 : 10·SBS스포츠)

▲200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예선(박태환 출전)(16 : 00·KBS2)

28일(화)

▲200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00 : 45·KBS2)

'강진 베이스볼 파크' 문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연습장과 정규구장 등을 갖춘 강진베이스볼 파크가 문을 열었다.

강진군은 지난 25일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에서 유영구 대한야구위원회(KBO) 총재,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 베이스볼 파크 준공식을 가졌다.

베이스볼 파크는 16만4천여㎡ 부지에 정규 구장 4개면(중앙 120m, 좌우 96m)과 실내연습장을 갖췄다. 베이스볼 파크는 내년 말까지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선수용 숙소, 호텔, 실외수영장, 팬션 등을 갖춘 전천후 야구 종합타운으로 조성된다.

정규구장은 사계절 경기를 할 수 있는 천연 잔디구장으로 모두 한 장소에 마련된 것이 특징이며 조만간 관제탑 설치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길이 70m, 너비 40m인 돔형 형태의 실내 연습장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준공식에는 야구해설가 허구연 위원의 이름을 딴 인조구장 명명식과 일본 요미우리 소속 이승엽의 부친이 기증한 표지석 제막식,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도 함께 열렸다.

군은 준공식을 계기로 프로야구와 아마추어 선수의 동계훈련지와 각종 전국 규모대회 유치, 야구인구 저변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설기현 주전 청신호

프리시즌 매치 전경기 출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풀럼에 복귀한 설기현(30)이 2009-2010 시즌을 앞두고 치러진 풀럼의 프리시즌 매치 5경기에 모두 출전하면서 주전경쟁에 청신호를 밝혔다.

설기현은 26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런던 로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피터버러 유나이티드 FC(2부리그)와 친선경기에 1-3으로 앞서던 후반 15분 교체출전했지만 공격포인트를 따내지 못했고, 팀은 후반에만 3골을 내주며 3-3으로 비겼다.

이로써 설기현은 풀럼의 5차례 프리시즌 매치에 모두 출전해 4경기를 풀타임 출전하고 한 차례 교체출전 하면서 풀럼의 선발 요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연합뉴스